

잃어버린 역사 마한을 깨우다

다양한 유적 전라도 문화의 분류

◇'아파트형 무덤' 나주 복암리고분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전남 나주에는 다수의 고분이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반남 고분군과 복암리 고분군이다. 드넓은 다시들 농경지 사이에 4기의 고분이 가까이 모여 있는 복암리 고분군은 본래 7기로 전해온다.

일제 말기부터 다시들에 경작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7기의 고분 중 3기가 없어지고 3기만 남게 됐다고 전해졌다. 남아있는 4기 중 1, 2, 4호분 석실도 도굴되고 그나마 안동권씨 집안의 선산으로 이용됐던 3호분만이 도굴되지 않고 후세에 전해올 수 있었다.

4기의 복암리 고분 중 가장 큰 3호분은 당시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영산강 유역에서 나타난 모든 형태의 무덤방들이 하나의 봉분에 모여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차곡차곡 쌓여있는 듯한 모양새로 인해 '아파트형 고분'이라는 별칭도 얻게 됐다. 복암리 고분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전남도 지방문화재에서 국가 사적 제404호로 승격되기도 했다.

고분이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300여m 떨어진 곳에 건립된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에는 복암리 3호분의 발굴 완료된 모습이 그대로 재현 전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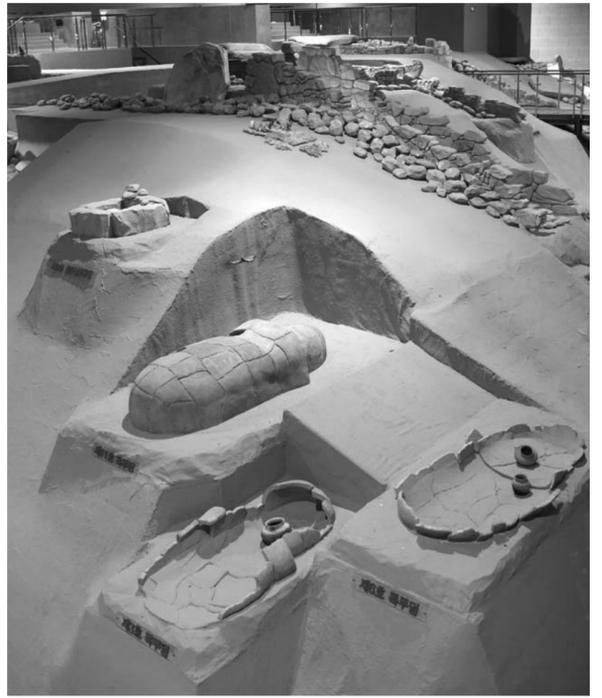
평면 네모꼴로 한 변이 최대 42m나 되는 복암리 3호분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개의 무덤방들이 하나의 봉분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이다. 무려 41개의 무덤이 한 고분에서 나왔는데 무덤의 종류도 시기가 달랐다. 돌널무덤(옹관묘) 22기, 구형석돌널무덤(수혈식 석곽묘) 3기, 굴식돌방무덤(횡형식 석실묘) 11기, 앞트기식돌널무덤(횡구식 석곽묘) 1기, 앞트기식돌방무덤(횡구식 석실묘) 2기, 돌널독널무덤(석곽 옹관묘) 1기, 나무널무덤(목관묘) 1기 등 4세기에 7세기까지의 묘제가 확인됐다.

종류가 다른 무덤이 있다는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처음 옹관무덤을 사용하다가 돌방무덤을 채용하면서 봉분을 네모꼴로 확장했고 이후 새롭게 백제양식 돌방무덤을 추가하면서 여러 개의 무덤방이 완성됐다.

"복암리 3호분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학계에서는 '옹관 고분'이 축조되다가 없어지고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굴해 보니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에 재현된 3호분 96석실 돌방무덤.



'아파트형 무덤' 3호분에는 영산강유역에서 나타난 모든 형태의 무덤방이 모여 있다.

무덤은 돌방인데 안에 옹관이 그대로 있는게 확인된 거죠. 마한시대 사람들의 묘지가 단순히 백제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없어진게 아니라 존속을 하고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박영훈 복암리고분전시관 조사연구팀)

3호분에서는 시기별 무덤 외에 금제관식, 철기, 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함께 발견됐다. 발견된 토기가운데 조족 무늬가 새겨진 토기도 다수 나왔는데 대표적인 마한 문양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촌고분과 대형옹관

복암리 고분전시관 뒤 야트막한 언덕에는 또 하나의 고분이 있다. 2013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정촌고분이다. 정촌고분은 한 변 길이 30m, 높이 9m인 5세기 후반대 마한 수장급의 방형 무덤으로, 1500여년 전 마한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분으로도 꼽힌다. 정촌고분 역시 복암리 고분과 마찬가지로 무덤 내에서 돌방 3기, 돌널 4기, 돌널 6기 등 14기의 매장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촌고분, 복암리 고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마한의 매장 문화다. 무덤은 땅을 파서 죽은 사람을 묻고 그 위에 흙더미를 쌓는 봉분묘, 지상에 흙더미를 쌓고 그 안에 주검을 안치한 분구묘로 구분된다. 분구묘는 마한지역에서 쓰이기 시작했으며 4세기말부터 6세기초까지는 영산강 유역에서 특히 성행했다. 복암리 고분이나 정촌고분 모두 분구묘다.

정촌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현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곳이지만 코로나19로 방문 당시에는 관람이 제한돼 있었다.

마한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가 대형화된 옹관이다. 옹은 옛날부터 생활용으로 사용되다가 어린 아이가 죽으면 관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영산강 유역에서는 성인의 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형 옹관을 별도로 제작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대형옹관을 복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대형옹관제작 고대기술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오량동 옹관 가마터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연구소 뒤편에 동일한 비율로 가마를 재현해 옹관을 제작하며 연구하고 있다.

◇자미산성과 반남고분군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에는 사적 제513호인 반남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영산강에 인접한 대안리, 신촌리, 덕산리 고분까지 40기의 고분이 반남고분군에 포함된다. 반남고분군은 4~5세기 마한 토착 세력이 남긴 유적으로 알려지는데, 백제가 마한을



복암리고분에서 출토된 각종 토기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야외에 재현해 놓은 옹관 가마. 연구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대형옹관 제작기술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고대 옹관 제작기술을 밝혀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 전시돼 있는 정촌고분 출토 대형옹관.

병합하던 시기와 맞물려 조성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반남고분군의 특징은 대형옹관고분이라는 점이다. 대형옹관고분이란 지상에 분구를 쌓고 분구 속에 시신을 안치한 커다란 옹관을 매장하는 방식이다.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의 독특한 고분양식으로, 3~6세기 이 일대에서 크게 유행했다.

3세기에는 옹관 절반을 지하에 묻는 반지하식이었으나 4세기 중반부터는 지상식으로 발전했으며 분구의 규모도 훨씬 대형화 돼 규모가 40~50m에 이른다. 고분은 피라미드형, 원추형, 사각형 등 크기와 모양

이 다양하다. 대형옹관고분은 나주 반남 일대는 물론 영암, 함평, 무안 등 영산강을 따라 형성되고 있으며, 옹관고분의 밀집도로 봤을 때 반남 지역이 고대 지배세력의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남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은 인근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촌리 9호분에서 발굴된 금동관, 금동신발, 은장삼엽문 환두도자, 옹관 등은 물론 마한시대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도 많다.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개관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게 좋겠다.

반남고분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자미산성을 올라가보는 것도 좋다. 자미산성은 해발 98m의 그리 높지 않은 자미산에 위치한다. 나지막한 산이지만 사방이 탁 트여 주변부가 모두 보이는 건 나주평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암 쌍무덤과 광주 신창동

영산강을 끼고 있는 영암에도 도기박물관이나 마한문화공원 쌍무덤 등 마한 흔적을 둘러볼 수 있는 곳이 많다. 조심스레 영암을 방문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소식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영산강과 가까운 시종면 일대에는 내동리 쌍무덤, 신연리 고분군, 장동 방대형 고분 등 마한시대 고분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지난해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가 발굴조사를 시작한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에서는 마한시대 금동관 조각(앞장식)과 동물모양 토기 등이 출토됐다.

시종면 외에도 영암읍 옥야리, 학산면 금계리, 미암면 남산리, 덕진면 금산 고분군이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옥야리 고분군은 28기에 달한다. 옥야리 무덤들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후반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광산구 신창동 유적(국가사적 375호) 역시 초기 철기시대 마한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거대한 농경복합유적이기도 하다. 1963년 옹관묘 조사를 통해 처음 발견된 이후 수십개의 돌널과 토기, 도량, 주거지 등이 확인됐다. 유적에서는 칼 활 등 무기, 꿩이 낫 등 농기구, 원통모양철기를 비롯한 각종 용기, 현악기, 빗, 신발 등 다양한 목기와 철기 유물이 출토됐다. 다만 마을 유적은 고분처럼 지표 위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독특한 고분·대형 옹관·금관·금동신발 등 역사적 가치 뛰어나 '아파트형 무덤' 등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의 고분양식 보여줘 광주·영암서도 많은 흔적들...철기시대 마한의 생활상 그대로



나주 반남면 덕산리 고분군.

LOTTE CINEMA | 충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란문의 1544-8855

1관	소울
2관	소울
3관	세자매
4관	소울, 런
5관	소울, 명탐정 코난: 진혼의 수락여행
6관	소울
9관	소울, 북스마트
7관	씨네커플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커넥트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8관	씨네커플 캐롤, 커넥트, 도굴, 이웃사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페라 콘서트 |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